

김영섭 “올해 구조조정 안겠다… 통신비 인하, 고민해봐야”

(KT 대표)

KT 기자간담회

내부인사 중심 영입 시사
“최대한 KT 다운 것 지향
디지털 로드맵 변화 없어”

“CEO가 바뀌 때마다 수천명에 이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올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겠다.”

김영섭 대표는 7일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인사는 여러 문제를 견어내고 KT인들이 마음을 합해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간 인사는 11~12월에 하게 되고 가급적 공백이니까 빠르게 하고 싶지만 회사 내 사정이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인사를 해야 할 듯하다. 구조조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현재는 위계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외부에서 인사를 많이 영입할 것이며 LG 출신이라 LG에서 인사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데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사를 단행할 것이며,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해 못 하겠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 훌륭한



김영섭 KT 대표가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T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가 KT 내에 있으면 좋다. KT 내의 훌륭한 사람을 선택해 보직을 맡기고 성장의 길을 가도록 하겠다. LG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LG 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는다. KT 중심으로 가고, 외부에서 영입해도 LG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KT가 생각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 “KT는 텔코 사업에서 오랫동안 기술 수준 1등을 기록하고 있다. 텔코 전반의 역량은 IT 역량이 충족되면 진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나타난다. 스마트시티 등이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IT 분야와 결합해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성장 원동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에서 카르텔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조치가 첫번째로,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꿀 건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항간에 저 사람은 누구 줄이다, 누구 편이다라는 얘기가 퍼져 있다. 좀 전까지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역량의 고도

화,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하게 협업하는 조직을 만들 생각이다. 성과를 잘 내는 사람들이 인재다. 지향한 바를 새롭게 설정할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KT 다운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향후 M&A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스타트업 인수를 필요한 수준까지는 하겠지만 인수를 많이 해서 큰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은 거의 없다. 전문 영역에서 최고로 잘 하는 조직들과 고수다운 에코시스템 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구축할 것이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주고 역량을 받아온다면 역량이 곱해지기 되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형식으로 도모를 해야 경쟁요소가 속도전으로 바뀌고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변화인데,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현도 전 KT 대표가 추진했던 디지코(DIGICO) 전략에 대해서도 그는 “IT 역량을 CT와 통합해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KT의 디지코 전략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 로드맵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KT 문화에 대해 “KT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품어온 자부심이 많다. 좀 더 분발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가치를 선도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큰 방향도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한 통신 분야의 과제에 대해 “통신의 혁신도 IT 역량에 의해 좌우된다. 통신도 과제가 많지만 젤 우선적인 과제가 IT 역량과 빠른 시간 내에 섞이면 통신역량도 배가 된다. 대표이사를 맡고 나서 좋은 정책을 정부가 하라고 들이밀기 전에 좋은 정책을 만들어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주가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 “주주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다.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책을 구사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 에너지를 축적하고 주가를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를 베이직으로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HD한국조선해양, 연간 수주목표 조기 달성

VLAC 4척 수주… 누적 159.4억만弗
“친환경 선박 시장 이끌어 나갈 것”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올해 누적 수주금액 159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가스텍 2023’ 행사에서 싱가포르 EPS사, 그리스 캐피탈(CAPITAL)사와 8만8000㎢급 암모니아 운반선(VLAC) 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총 6168억원 규모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추가 수주로 누적 수주금액 159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157억4000만달러)의 101.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선박은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건조

돼 2027년 하반기까지 두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옵션 2척이 포함돼 추가 수주도 기대된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발주된 27척의 초대형 LPG·암모니아 운반선 가운데 70%가 넘는 19척을 수주했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기존 초대형 가스운반선과 비교해 암모니아 선적 용량을 탱크의 86%에서 98%까지 크게 늘렸다. 울드파나막스급 선박에서는 세계 최하다.

이 선박은 LPG 이중연료추진 선박이지만 향후 암모니아 추진 엔진이 개발 완료되면 선주와의 협의를 통해 암모니아 추진선으로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양이 변경되면 이 선박은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추진·운반선이 된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 원천기술 보유 회사인 MAN ES, WinGD 등과 협력해 내년을 목표로 암모니아 추진 대형엔진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이날 HD현대중공업은 EPS사 및 미국선급협회(ABS), 독일 만 에너지솔루션(MAN ES)·싱가포르해양항만청(MPA)과 암모니아 이중연료추진 운반선 개발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풍부한 가스선 건조 경험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에 성공했다”며 “선제적인 기술개발 노력으로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포스코인터-에퀴노르, 친환경 사업 맞손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7일 세계적인 에너지기업 에퀴노르와 ‘친환경분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사업 공동개발 협력 ▲저탄소 수소·암모니아사업 공동개발 협력 ▲강제 공급망 구축 ▲LNG 사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에퀴노르와 ‘반딧불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기로 했다. 경북 울산시 연안 70km 해상에 15MW급 풍력발전기 50기를 설치해 총 750MW규모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을 구축하는 사업

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 외에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해결을 위해 에퀴노르와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분야 공동사업 개발 기회 발굴, 해상풍력향 강제 공급망 구축, LNG 전 밸류체인(탐사-생산-저장-발전) 분야의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전척 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부문장은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글로벌 선진기업과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보와 개발에 본격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저탄소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을 이어가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생태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삼성전자

삼성전자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 공개

삼성전자가 패션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한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Galaxy Z Fold5 Thom Browne Edition)’을 공개했다.

‘갤럭시 Z 폴드5 톰브라운 에디션’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G, ‘슈퍼스타트데이 2023’ 개최

스타트업 9곳 협업 성과 공유

LG가 육성한 유망 스타트업들이 모여 그동안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했다.

LG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슈퍼스타트데이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슈퍼스타트데이는 LG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행사다.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 6회째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LG가 집중 육성하는 ‘ABC(AI, Bio, Cleantech)’를 비롯해 소부장과 라이프스타일 분야 스타트업

40곳이 참여했다.

LG가 직접 발굴한 스타트업 중 9곳이 1년간 협업 성과를 공유했다. ▲동물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반려견·반려묘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우주라컴퍼니’ ▲최적의 물류 배차·경로 등 이동관련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위모빌리티’ ▲위성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한 ‘메이사플래닛’ 등이다. /김재용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 ‘2024 아이오닉 6’ 출시

현대자동차가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의 연식변경 모델 ‘2024 아이오닉6’을 이달 8일 출시하고 판매를 본격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엔트리 트림인 익스클루시브부터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2열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레인 센서, 전자식 룸미러(E CM)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최상위 트림인 프레스티지에는 보스(BOSE) 음향시스템을 기본 탑재했다. 아이오닉6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트림별로 선호도가 높은 2개 선택 품목을 묶은



현대차 2024 아이오닉 6

‘1주년 기념 패키지’도 도입했다.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트림은 고객 선호 사양으로 재구성하면서 가격은 70만원 인하했고, 그외 트림은 가격을 동결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양성운 기자